

[사회]

63년만에 한국 국적 취득
일본 출신 기미코 할머니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존재로 6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한국 국민이 됐다고 생각하니 눈을 감아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63년 전인 1945년 한국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건너왔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생활을 해온 일본인 구사마 기미코(79·장흥군 유치면) 할머니가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
이방인 설움 딛고
이젠 뿔뿔한 한국인
죽어도 여한 없어
”



13일 오후 광주시 화정동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귀화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20명의 귀화 허가 대상자들이 법무부가 지급한 귀화증서와 태극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13일 오후 광주시 화정동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서유교) 대회의실. 기미코 할머니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광주·전남 외국인 20명에게 귀화증서가 주어지고 있었다. 허리가 한창 굽은 기미코 할머니는 애국가 가 울려 퍼지자 두 손으로 책상을 부여잡은 채 허리를 폈다. 더듬더듬 애국가를 따라 부르던 기미코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동안의 회한만큼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구사마 기미코’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할머니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가 귀화증서를 받았다. 동아시아 현대사의 거친 흐름 속에 누구보다 굴곡이 많은 세월을 보냈던 기미코 할머니가 국내 체류 63년만에 ‘이방인’이 아닌 한국 국민이 되는 순간이었다. 일본 나가노현 출신인 기미코 할머니는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해

방 후 한국 땅으로 건너왔다. 열여덟 꽃다운 나이던 할머니는 일곱 살 연상이던 남편의 고향, 장흥 집에 도착한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 하나만 믿고 따라왔건만 이미 그곳에는 남편의 부처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절살이를 하게 된다. 이후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지만 모두 본처의 아들로 등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호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마을의 크고작은 소일거리를 거들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몇 년 전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인근 성당 교인들이 할머니를 돕고 있다. 교인들은 무너져가던 할머니의 집을 컨테이너집으로 바꿔주었다. 그러나 국적이 없어 정부로부터 의료나 생계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

도 받지 못했다. 기미코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할머니의 귀화신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기미코 할머니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불우외국인 20명에게 귀화증서를 전달했다. 기미코 할머니에 대해서는 후원금 전달과 함께 꾸준한 지원도 약속했다. 기미코 할머니의 후원자 남모(64)씨는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낸 할머니가 지금부터라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며 “60여년간 만나지 못한 일본 가족들도 상봉시키고, 아픈 몸도 치료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완연한 봄 3월 14일 (음 2월 7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났으며 점차 개겠다. 광주: 7~16°C, 서울: 7~17°C, 부산: 6~16°C, 대구: 5~17°C, 대전: 6~14°C, 전주: 6~16°C, 광주: 7~17°C, 목포: 7~16°C, 여수: 5~17°C, 제주: 5~8°C. <주간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씨: 맑음, 구름, 흐림, 비, 눈.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한국전쟁 ‘나주경찰부대사건’ 희생자 유족들
국가 상대 70억 손배소

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부대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가장한 나주경찰부대를 환영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희생자들의 유족 140여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6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희생자에 대해 1억원씩,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 2천만~3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나주경찰부대사건’은 1950년 7월 25일 나주경찰부대가 해로로 후퇴하려고 나주시와 해남군 등지로 이동하던 중 주민 97명을 사살한 사건으로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의 지난해 10월 국가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수 기름 제거 작업 마무리

해경 “양식장 피해 없어” 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원유나 뱀커유 등 중질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경유를 물포 등을 이용해 잘게 쪼는 방법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해 현재 경유가 모두 증발한 상태”라며 “연안과 양식장도 사고 현장으로부터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피해 입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유조선 ‘흥양호’ 선장 유도(58)씨와 어획물 운반선 ‘801정영호’

선장 정모(71)씨가 항법을 무시한 채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두 선장을 업무상과실선박과과외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8시15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8km 해상에서 충돌 대산항에서 부산으로 가던 4천66t급 유조선 ‘흥양호’와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가던 90t급 어획물 운반선 ‘801정영호’가 충돌해 탱크 일부가 파손되면서 경유 253t이 바다로 유출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태안 앞바다 해조류 절반 감소

환경부 생태계 조사 발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로 태안 앞바다의 해조류와 해조류가 절반 가량 감소했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작년 12월26일~지난 1월31일 태안지역 생태계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이 지역 해조(海藻)류는 1㎡당 평균 223.04g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돼 2007년 2월 조사 때의 392.56g보다 43.2%나 줄었다. 또 해초(海草)류인 새우말은 조간대(潮間帶,갯벌)의 경우 생육밀도가

2007년 10월 조사 때의 1천53 Shoots/㎡에 비해 47.3% 줄어든 555shoots/㎡였다. 해조류는 주로 바위 등에 붙어사는 김이나 미역, 파래 등 바다에 사는 조류이며 해조류는 새우말, 거머리말 등 꽃이 피는 바다 식물의 총칭이다. 환경부는 해조류와 해조류가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중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식물들이 깨달어 어류, 조류 등 다른 상등 생물들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올해 벚꽃 개화 평년보다 빠를 듯
광주 3월31일·여수 4월 2일 예상

따뜻한 날씨로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4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벚꽃 개화 시기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3일 벚꽃이 3월25일 제주도(서귀포)에서 개화하기 시작해, 남부지방은 3월 26일~4월 2일, 중부지방은 4월 3일~14일, 중부내륙 산간지방은 4월 15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3월 31일께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수는 4월 2일, 제주도는 3월 25일께로 관측된다. 벚꽃의 개화일은 한 그루 중

2~3송이가 완전히 피었을 때를 말하며, 개화 후 7일 후 절정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개화 직전의 기온 변화와 일조시간, 강수량 등에 따라 개화 예상일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동일 위도에서 벚꽃은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평균 2~3일 정도 늦게 꽃이 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신승남·김대웅씨 변호사 활동 가능

수사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복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3일

“등록심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 심사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위는 이들이 사면·복권된 만큼 변호사 활동의 자격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원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릇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기성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